https://doi.org/10.5392/JKCA.2017.17.08.597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Impact of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on Peer Violence Behavior in Out-of-School Youths :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Aggression

최은희*, 황미영**
충북연구원*,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Eun-Hee Choi(ehchoi@cri.re.kr)*, Mi-Young Whang(candiyoung@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경험이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169명이다.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직접효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불안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피해가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폭력가해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입 및 또래폭력 예방을 위한 공격성 감소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업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개입, 가족관계 및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학교 밖 청소년 | 가정폭력피해 | 또래폭력가해 | 불안 | 공격성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the victimization by family violence has influence on peer violence perpetra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anxiety and aggression in out-of-school youths. Subjects consist of 169 out - of-school youths in Chungbuk and data a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18.0 ver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ictimization by family violence has positive influence on peer violence perpetration. Second, when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aggression is tested, aggression only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er violence behavio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we make efforts such as prompt intervention for out-of-school youths and their's family after school dropout, the reinforcement of family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and youth competency, and the transition of social perception regarding out-of-school youths to decrease family and peer violence.

■ keyword : | Out-of-School Youths |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 Peer Violence Perpetration | Anxiety | Aggression |

접수일자 : 2017년 05월 17일
수정일자 : 2017년 06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6월 22일
교신저자 : 최은희, e-mail : ehchoi@cri.re.kr

Ⅰ. 서론

청소년기는 성장과 전환의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발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좌절을 참지 못하여 쉽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1].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연령에 비해 가정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와 가해,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며 이 시기의 폭력경험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단기적으로 여러 발달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 즉 가정폭력은 학습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재생산되고 사회폭력을 야기한다.

그동안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었고, 부모로부터 폭력피해를 자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3-7]. 그러나 이 연구들은 비교적 표집이 손쉬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경험 실태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가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매년 5만 명 정도 발생한다. 2015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적학생의 1.3%, 중학생의 0.6%이다[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9]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정서, 정보, 경제)과 부모관계의 질은 낮았으며, 학대와 방임은 높았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후 선입견/편견/무시(42.9%), 부모와의 갈등(26.3%)과 같은 어려움을 느끼며, 집단따돌림(5.2%), 심하게 얻어맞음(5.6%), 성희롱(3.5%)과 같은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가해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집단따돌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또래폭력가해도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김성하와 황선아[10]는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23.8%)이 재학생범죄율(0.7%)보다 중학교 37배, 고등학교 18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여 또래폭력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이라는 누구나 겪지 않는 생애사건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으나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거나(47.1%) 무엇을 할지 배회하는 유형의 청소년도 있어 부모와의 관계 악화, 비행 및 또래폭력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사회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경험이 모방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2차 환경인 지역사회의 또래집단 내에서도 발현되는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학습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높이고,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연구결과[53]에 기반하여 불안과 공격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3][11]은 가정폭력과 또래폭력(주로 학교폭력)과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격성, 가정폭력피해경험 등을 분석[12][13]하거나 공격성의 매개효과[5][14][50]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종합하면서 일반청소년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수준이 더 높다[15]는 것에 기반하여 불안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 및 또래폭력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래폭력가해의 경로를 파악하여 학교청소년과 조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불안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21]. 즉 정규학교에 3개월 이상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으로 학업중단, 학업중퇴, 비진학 청소년과 같이 학업을 하지 않는 청소년 뿐 아니라 취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업을 지속하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한다.

2015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47,070명으로 전년대비 4,836명 감소[8]하였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률은 더 높아진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개인, 가정, 또래, 학교요인 등 다양하며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요인으로 충동성, 우울, 낮은 자아효능감, 반사회적 성격이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고[16][17], 가정요인은 불안정한 가족관계, 가족의 무관심 등[18][19]의 기능적 결손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준다. 또래요인은 또래괴롭힘으로 학교적응이 어렵거나 비행또래들과의 관계[55], 학교요인으로는 학습능력 및 의욕저하, 교사의 차별[17][55]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학업중단(탈학교)은 청소년 문제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 학교를 떠난 후 청소년은 학교에서 벗어난 해방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학교를 떠난 것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무기력감과 부모와의 갈등 고조, 이로 인한 가출충동, 자기 비하감, 비행 유혹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20].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유형은 학업 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학업형, 직업형, 니트(NEET)형, 비행형으로[21], 진로결정과 생활특성에 따라 학업형, 근로형, 유예형, 비행형[22]으로 분류된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하지만 특히 니트형 또는 유예형, 비행형의 경우 다른 유형 보다 가족, 또래와의 갈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내포되어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의 관계

폭력피해자가 다른 유형의 폭력가해자가 되는 과정은 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된다. 사회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그 결과 발생되는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개인은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5]. 즉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을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폭력 사용 기술을 동시에 배움으로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 및 다른 대상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은 일반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준한다. 가정폭력노출경험은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23-25],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14][26-28]. 이승주 등[14]은 부모의 신체폭력과 언어폭력피해경험 청소년이 가정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Espelage 등[28]은 종단연구에서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기 폭력문제와 학교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조춘범 등[24]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격성이 높고 학교폭력가해경험이 많다고 보고하여,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으로 재생산됨을 입증하였다.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폭력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도 가정폭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업중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탈학교는 가정폭력의 충분한 사유가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폭력비행을 행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가정폭력피해와 불안, 공격성의 관계

불안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이 장차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느끼는 기분상태로 위험상황의 객관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외적 자극에 대해 위협적이냐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29 재인용].

청소년이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면 분노, 수치심,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인지특성을 갖게 되며,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은 높아진다[30][54]. 즉 가정폭력경험은 청소년의 불안과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 불안수준이 높으며, 일시적인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 불안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31-33].

공격성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부모의 역할모델을 통해 폭력이 학습될 가능성이 많아, 이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이 높다고 한다[5][6]. 이는 공격적인 모델링을 관찰 학습함으로써 공격성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충동적이 되든지 또는 강화효과를 일으켜 공격성을 촉진할 수 있다[11]. 김경호[34]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 방식으로 폭력에 의존하고 자신의 폭력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애리[35]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도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점차 증가하지만,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공격성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형진과 황동진[36]은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체적 학대나 폭력적인 언어를 학습한 결과 공격성을 표출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공격성이 가정폭력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4. 불안, 공격성 및 또래폭력가해의 관계

불안과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불안이 폭력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자[37][38] 폭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39][40]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위험요인으로 본 오종은 등[38]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가해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분리하여 불안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불안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해청소년의 경우 불안이 폭력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오인수[37]도 폭력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불안 수준이 높았고, 높은 불안상태가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여 불안을 폭력의 원인으로 보았다. 반면 Rottenberg 등[40]은 불안한 청소년이 모두 폭력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분노유발상황에서도 무관심한 듯 반응하며, 분노와 공격행동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reland[39]도 불안은 외현화 문제에 보호요인이 되어 폭력을 감소시키며, 폭력가해자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평균에 가까운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연구와 외국 연구간 다른 결과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위험요인으로, 외국의 선행연구는 보호요인으로 불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불안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7][38]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공격성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 가족 및 사회구조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발전한다. 특히 생애초기 형성된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과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4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의 반응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의해 나타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 반응의 결과를 예측하고 예기되는 행동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 즉 공격성을 학습하여 발달한 개인의 경우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화된 공격성 반응을 선택하여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42]. 따라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또래친구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공격성이

또래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14][23][5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는 불안을 매개로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는 공격성을 매개로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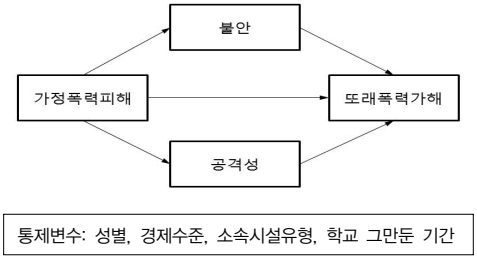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3]의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이다. 이 조사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결과를 살펴보도록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의 위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대상은 충북 위기·취약청소년 366명 중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청소년 169명으로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은 남자 58.0%, 여자 42.0%이며 가정경제수준은 중간정도로 인식한 청소년이 57.4%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소속시설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53.3%,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21.3%의 순이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2년 이상이 43.2%, 1~2년 미만 25.4%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	98	58.0
	여	71	42.0
	합계	169	100.0
소속 시설 유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90	53.3
	대안학교	29	17.2
	보호관찰소, 소년원	36	21.3
	쉼터, 양육시설 등	14	8.2
	합계	169	100.0
경제 수준	상	28	26.0
	중	97	57.4
	하	44	16.6
	합계	169	100.0
학교를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53	31.4
	1~2년 미만	43	25.4
	2년 이상	73	43.2
	합계	169	100.0

3.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가정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3]이 개발한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신체적 위협, 내쫓김, 욕설, 방임을 경험하였는지 등 5문항으로, 전혀 없다 1점부터 주 1~2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피해가 큰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788이다.

2) 종속변수 : 또래폭력가해

또래폭력가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3]이 개발한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 물건을 빼앗은 적, 폭행한 적이 있는가 등 4문항으로, 전혀 없다 1점부터 주 1~2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폭력가해를 많이 한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27이다.

3) 매개변수

(1) 불안

불안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3]의 '2016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이유없이 불안하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 될 때가 많다 등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60이다.

(2) 공격성

공격성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43]이 개발한 '2016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등 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50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경제수준, 학교 그만둔 기간, 소속시설유형이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 경제수준은 상과 중 0, 하 1, 학교 그만둔 기간은 2년 미만 0, 2년 이상 1, 소속시설유형은 센터 및 대안학교 0, 쉼터 및 보호관찰소 1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피해, 또래폭력가해, 불안 및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45]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Baron과 Kenny[45]의 4단계 분석은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2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3단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4단계는 매개변수가 모델에 추가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확인한다. 4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추가된 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지면 완전매개모델이 된다. 만약 매개변수가 추가된 후, 독립변수 회귀계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부분매개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후 매개효과의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a = 가정폭력피해 → 불안(공격성)의 비표준화계수
b = 불안(공격성) → 또래폭력가해의 비표준화계수
s_a^2 = 경로 a의 표준오차, s_b^2 = 경로 b의 표준오차

Ⅳ. 분석결과

1. 변수들의 집단 간 평균 비교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불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보다 여자의 불안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3.51, p<.001).

소속시설유형에 따라서는 또래폭력가해, 불안 및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폭력가해의 경우 보호관찰소 등의 청소년들이 평균 1.62점(F=3.51, p<.05), 불안은 쉼터/양육시설 등의 청소년들이 평균 2.70점(F=4.42, p<.01)이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 청소년들이 2.76점(F=7.52, p<.001)으로 가장 높았다. 공격성은 보호관찰소/소년원 청소년들이 2.32점(F=2.88, p<.05)으로 가장 높았다. Scheffe 사후검증결과 불안에서만 각 집단은 유의미하게 구분되었다.

2.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표 2.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 비교

구분			가정폭력피해		또래폭력가해		불안		공격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9	.41	1.31	.68	2.51	1.03	2.07	.87
성별	남	98	1.19	.43	1.26	.62	2.28	1.09	2.03	.90
	여	71	1.20	.39	1.39	.75	2.83	.85	2.12	.83
t(df=167)			−.23		−1.22		−3.51***		−.67	
소속 시설 유형	지원센터	90	1.21	.42	1.22	.61	2.65 ab	1.06	2.10	.90
	대안학교	29	1.25	.58	1.29	.56	1.90 a	.99	1.71	.66
	보호관찰소 등	36	1.09	.18	1.62	.93	2.58 ab	.92	2.32	.93
	쉼터 등	14	1.26	.37	1.13	.29	2.70 b	.84	1.96	.70
F(df=3)			1.09		3.51*		4.42**		2.88*	
가정 경제 수준	상	28	1.27	.48	1.33	.60	2.44	1.15	1.91	.82
	중	97	1.16	.37	1.30	.69	2.43	1.05	2.06	.84
	하	44	1.22	.45	1.32	.71	2.74	.91	2.20	.96
F(df=2)			.95		.03		1.54		.99	
학교 그만둔 기간	1년 미만	53	1.23	.48	1.29	.69	2.76 b	1.04	2.03	.80
	1–2년 미만	43	1.23	.51	1.37	.76	2.01 a	.88	2.05	.90
	2년 이상	73	1.15	.28	1.29	.63	2.62 b	1.02	2.11	.91
F(df=2)			.71		.20		7.52***		.13	

****p<.001, **p<.01, *p<.05

회귀분석 실시 이전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r=.33, p<.001), 불안(r=.25, p<.001), 공격성(r=.18, p<.05)과, 또래폭력가해는 공격성(r=.42, p<.001)과, 불안은 공격성(r=.32, p<.001)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낮거나 보통 정도이나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2, 공차한계(tolerance)는 0.93으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구분	가정폭력 피해	또래폭력 가해	불안	공격성
가정폭력피해				
또래폭력가해	.33***			
불안	.25***	.11		
공격성	.18*	.42***	.32***	

****p<.001, **p<.01, *p<.05

3.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 불안의 매개효과

가정폭력피해가 또래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의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단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경제수준, 소속시설유형, 학교 그만둔 시기는 통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3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피해가 매개변수인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20, p<.01). 즉 가정폭력피해가 증가할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불안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불안이 종속변수인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9, p>.05) 모형식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F=1.48, p>.05).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불안을 통제한 후 가정폭력피해가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안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29, p<.001).

4단계의 분석결과를 1단계와 비교하면 불안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회귀계수는 1단계 β=.30에서 4단계 β=.29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불안이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 불안의 매개효과

단계	변수	B	β	R^2	F
1단계 (독립→ 종속)	가정폭력피해 → 또래폭력가해	.49	.30***	.122	4.54***
2단계 (독립→ 매개)	가정폭력피해 → 불안	.49	.20**	.113	4.15***
3단계 (매개→ 종속)	불안 → 또래폭력가해	.06	.09	.043	1.48
4단계 (매개변수 통제)	가정폭력피해 → 또래폭력가해 (불안통제)	.48	.29***	.123	3.79***

*p<.05, **p<.01, ***p<.001
주) 통제변수 : 성별, 경제수준, 학교 그만둔 기간, 소속시설유형

4.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정폭력피해가 또래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3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피해가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16, p<.05). 즉 가정폭력피해가 증가할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이 종속변수인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β=.46, p<.001). 4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통제한 후 가정폭력피해가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정폭력피해는 또래폭력가해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23, p<.001). 4단계의 분석결과를 1단계와 비교하면, 공격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회귀계수는 1단계 β=.30에서 4단계 β=.23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공격성이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Sobel test를 한 결과 Z=1.983(p<.05)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와의 관계 : 공격성의 매개효과

단계	변수	B	β	R^2	F
1단계 (독립→ 종속)	가정폭력피해 → 또래폭력가해	.49	.30***	.12	4.54***
2단계 (독립→ 매개)	가정폭력피해 → 공격성	.33	.16*	.042	1.42
3단계 (매개→ 종속)	공격성 → 또래폭력가해	.36	.46***	.242	10.39***
4단계 (매개변수 통제)	가정폭력피해 → 또래폭력가해 (공격성통제)	.38	.23***	.293	11.21***

*p<.05, **p<.01, ***p<.001
주) 통제변수 : 성별, 경제수준, 학교 그만둔 기간, 소속시설유형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폭력피해가 또래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불안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설을 설정하고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중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 169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은 Baron과 Kenny [44]의 4단계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피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또래폭력가해 수준은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피해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오종은[38], 이승주 등[1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의 폭력적

이고 비민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방식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가 또래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낳으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가정폭력은 결코 방치되거나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한 가정은 해체와 재결합 등의 과정 속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지지체계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45]. 이렇게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적응 및 정서 ·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업중단숙려기간에 예방을 위한 부모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또는 다른 지원기관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부모자녀 간 관계는 악화되고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서도 학업중단 1년차에 부모의 학대가 높다는 결과[45]가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서로 학업중단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관계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 학교 밖 지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에서 불안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경험과 폭력비행과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미선과 곽대경[47]의 연구,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폭력행동 경로에서 가해청소년의 불안은 반응적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오종은 등[38]의 결과와도 다르다.

청소년기의 불안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하거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무관심 등 부모자녀 관계가 갈등상태[48] 및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경우 증가한다[49]고 알려졌다. 본 연구도 가정폭력피해가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이 또래폭력가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일반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피해와 가해의 경로가 다름을 시사한다. 따라서 또래폭력가해에 대한 불안의 매개효과가 아닌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집단따돌림피해가 5.2% 발생한다는 것[9]에 비추어볼 때 또래폭력피해와의 관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래폭력피해는 가해의 또 다른 모습으로, 학교 밖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친한 친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불안이 학교 밖 청소년의 또래폭력을 매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을 위해서는 불안수준 감소와 조절을 돕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가족관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편견과 무시가 아닌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폭력가해에서 공격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애[50], 이승주 등[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가정폭력피해는 공격성을 발달시키며 발달된 공격성은 또래폭력가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공격성으로 발전하고, 제한된 또래관계 안에서 특정한 상황을 갈등관계로 인식하여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가해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폭력 환경에 노출된 경우 폭력상황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사용에도 허용적인 경향이 높아 가해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3][51]. 그러나 공격성이 높아져도 자기를 보호하고 조절하는 역량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래의 압력이나 강요를 잘 다룰 수 있다. 폭력에 노출된 가정과 비행하는 또래친구들이 있는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기 통제성

을 강화함으로 폭력상황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52].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멘토링이나 코칭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조절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정폭력피해와 또래 폭력가해와의 인과관계를 다루었다. 그동안 청소년 폭력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선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려 그 관계성으로 파악하여 기존연구와 차별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간의 연구에서도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자체가 드문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불안이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 의의를 더하였다.

그러나 충북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래폭력피해자가 되는 경로를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한동헌, 김완일,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1호, pp.247-263, 2013.

[2] D. Finkelhor, R. K. Ormrod, and H. A. Turner,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Vol.31, No.1, pp.7-26, 2007.

[3] 김민정,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pp.27-53, 2010.

[4] 박은영,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 조민경, *가정에서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6] L. Bancroft and J. G. Silverman, The Batterer as Parent: Addressing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Family Dynamics,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2.

[7] R. Mejia, W. Kliewer, and L. Williams, "Domestic Violence Exposure in Colombian Adolescents: Pathways to Violen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9, No.2, pp.257-267, 2006.

[8] 교육부,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16.

[9] 여성가족부,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10] 김성하, 황선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경기연구원, 이슈 & 진단, pp.1-24, 2015.

[11] 이승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29권, pp.116-135, 2012.

[12] 김은영,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폭력피해 및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1호, pp.1-22, 2014.

[13] 박진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4] 이승주, 정병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3호, pp.223-250, 2015.

[15]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4권, pp.222-251, 2010.

[16] 김로라, 이조경,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

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9호, pp.53-81, 2016.

[17] 이주연, 정제영,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힘겨루기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학연구, 제53권, 제3호, pp.89-118, 2015.

[18] 남영옥,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8권, 제4호, pp.251-274, 2016.

[19] C. Peraita and M. Pastor, "The Primary School Dropout in Spai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and Labor Market Conditions," Education Economics, Vol.8, pp.157-168, 2010.

[20]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제46권, pp.19-31, 2002.

[21]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2] 백혜정, 송미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23] 신성철, 백석기,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1호, pp.23-44, 2014.

[24] 조춘범, 조남홍,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79-100, 2011.

[25] S. Mustanoja, A. H. Luukkonen, H. Hakko, P. Räsänen, H. Säävälä, and K. Riala, "I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Violent Crime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ur among Underage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42, pp.495-506, 2011.

[26]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 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 pp.79-100, 2012.

[27] L. Cluver, L. Bowes, and F. Gardne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AIDS Affected and Vulnerable Children in South Africa," Child Abuse and Neglect, Vol.34, No.10, pp.793-803, 2010.

[28] D. L. Espelage, S. Low, M. Rao, J. S. Hong, and T. D. Little, "Family Violence, Bullying, Fighting,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A Longitudinal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24, No.2, pp.337-349, 2013.

[29] 한영숙,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행동과 불안에 관한 연구: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을 중심으로,* 꽃동네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0] 진태원, *학교폭력치료상담,* 학지사, 2006.

[31] 김수정, 정익중,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효과와 최신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43권, pp.1-28, 2013.

[32] 김영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470-481, 2016.

[33] L. Ethier, J. P. Lemelin, and C. Lacharite,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and Neglect, Vol.28, No.12, pp.1265-1278, 2004.

[34] 김경호,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pp.23-37, 2006.

[35] 박애리,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pp.503-528, 2014.

[36] 이형진, 황동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권, pp.5-31, 2015.

[37] 오인수, "초등학생의 학교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요인," 한국초등교육학회, 제21권, 제3호, pp.91-110, 2008.

[38] 오종은, 이재연,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 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 표현양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5호, pp.163-178, 2014.

[39] J. L. Ireland, "Psychological Health and Bullying Behavior among Adolescent Prisoners: A Study of Young and Juvenile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6, No.3, pp.236-243, 2005.

[40] J. Rottenberg, J. J. Gross, and I. H. Gotlib, "Emotion Context Insensitivity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4, pp.627-639, 2005.

[41] 김선숙,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2권, pp.65-95, 2007.

[42] S. Nolen-Hoeksema, B. L. Fredrickson, G. R. Loftus, and W. A. Wagenaar, 2009, 애트 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원론(이진환, 신현정, 정봉교, 이관호, 양윤, 정영숙, 최양규 역), 박학사, 2011.

[4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6.

[44]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45]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46] 민윤희, *제주도지역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학교적응성,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47] 김미선, 곽대경,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시기의 폭력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1권, pp.9-40, 2013.

[48] 김갑숙, 전영숙,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4호, pp.79-94, 2016.

[49] 최진영,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이 폭력 피·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보호효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0] 이정애,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1] 장덕희,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21-43, 2010.

[52] T. W. Gardner, T. J. Dishion, and A. M. Connell, "Adolescent Self-Regulation as Resilience: Resistance to Antisocial Behavior within the Deviant Peer Contex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6, pp.273-284, 2008.

[53] S. H. Birch and G. W. Lad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5, pp.61-79, 1997.

[54] 이재경, 정슬기, 김지선, 이계성,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장기 부정적 경험과 불안이 인터넷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03-115, 2016.

[55]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2호, pp.225-241, 2010.

저 자 소 개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1년 8월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5년 7월 ~ 현재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 청소년정신건강, 폭력

황 미 영(Mi-Young Whang) 정회원

- 2001년 8월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07년 8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충청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분야